

불자 세상보기



임은택 계명대 사회학과

구태정치 답습 벗어나려면 정당정치 원칙부터 바로 세워야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일까?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두 거대 정당이 야심차게 공정한 공천혁명은 소란한 요란했을 뿐, 국민에게 별다른 감동을 주지 못했다.

감동 없는 공천, 투표로 심판하자

없는 정당 오너집단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천당과 지옥을 오가면서 살아남았고, 공천 탈락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당을 바꾸거나 아니면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해서 지역에서 심판을 받았다고 울분을 토로한다.

답하기 그지없다. 불과 한 달 전만해도 정권심판론을 내세워 총선 승리를 다 거머쥔 것 같았던 민주당의 헛발질은 단지 우연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한편의 잘 짜인 각본처럼 진행되었다.

되었던 여론조사 방식은 불법과 조작, 확보된 데이터의 비공개로 인해 참여민주주의를 퇴색시켰다. 정책이 있으면 당사자들에게 대책이 있다고 하는 말이 결코 허언이 아닌 듯하다.

종교인 과세 찬반 논란 '이렇게 생각한다'

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 과세를 언제까지 미루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종교인 과세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스님들 불합리한 불원 사라질 것" 영암 스님(조계종 총무부장) 종교인 과세해도 상관 없다. 하는 것이 옳다. 스님들 사고 당해도 국가에 소득으로 등록된 것이 없어 제대로 보상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무슨 돈이 있겠나. 스님들은 생선이 종사 않는 무산자(無産者)이다. 종교단체가 면세 받는 것은 세금 대신 열심히 국민 정서 안정을 돕는 본분에 충실하라는 뜻이다.

"왜 선거 앞두고 과세 논하나" 능해 스님(대교종 총무부장) 종교인 과세는 옳지 않다. 종교인 과세는 가끔 한번 씩 나오는 말이다. 왜 선거를 앞두고 이 시점에 다시 논의되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종교인도 국민, 당연히 과세해야 VS 신성한 성직을 근거로 비하말라

"근본적으로는 해당 안된다" 송암 스님(안성 도피안사 주지) 출가자는 결사 신분으로 무소유가 근본이다. 근본자리에서 보면 과세 대상인지부터가 의문이다.

"과세점 이하면 면세 받으면 돼" 정웅기(불씨넷 사무총장) 종교인 과세는 당연히 해야 한다. 정부가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은 공평과세와 조세형평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다.

"국가 할 일 종교계가 한다" 무외 정사(진각종 총무부장) 종교인 과세가 제도적으로 시행된다면 따르겠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종교계는 신도로부터 보시 받은 것을 중생구제를 위해 사용한다.

社說 1000일 결사 등불 활활 타오르길 조계종이 1000일 정진결사에 돌입한다. 민족화해·평화통일·한반도 생명 평화 공동체 실현을 위한 행사는 3월 28일 진제법원 대종사의 종정 추대법회에 임재해 그 의미를 더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일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대표팩스(02)737-0697

탈종공고 •법 명 : 삼화 (속명 : 황말연) •주 소 : 서울시 노원구 상계4동 산152번지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3일 불교조계종 삼화불교 총무원장 법하

해명공고 현대불교신문 제879호(3/14일자)에 25면에 게재된 '무안 약사사에 관한 탈종공고'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주지스님으로 임명된 원진스님을 비롯하여 신도회에서 정상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2012년 3월 21일 대한불교법화종 약사사 주지 원진, 신도회장 합장

3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2년의 역사와 자산77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35 친절상담 상무 이강욱 ☎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 010-7314-2522

범음범패학인모집 기초의식 : 1 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6시까지 2 반 : 매주 목요일 저녁 7~9시까지 내용 : 목탁불공 및 종성(노량색) 각단청 예불